제12강 취미판단의 제4계기: 대상들에 관한 만족의 양상

(1교시)

◆ 취미판단의 필연성

※ 앞의 강의에서 살펴본 '미의 이상'에 관해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고, 『판단력 비판』(김상현 옮김, 책세상, 2005)의 p.66, **취미판단의 제4계기**로 들어간다.

▲ 미의 이상

- 인간은 정신적인 동시에 신체적인 존재이다.
 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자연 세계에 표상하고 실현시킬 수 있다.

자연 ----------→ 자유
■■
美의 이상
: 인간의 아름다움
(정신이 신체로 사물화된 아름다움)

- 자연사물로서의 인간을 보면서도 인간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.

▲ 취미판단의 필연성

- 취미판단의 필연성: 아름다움과 만족의 관계가 필연적이다.
  (아름다운 것은 반드시 만족을 동반한다.)

※ 연역(Deduktion): 권리(권한) 증명

- 취미판단의 연역
  : 취미판단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보편타당성을 주장하는가?
  ⇒ 제2계기(보편성을 다룬 부분)와 제4계기(필연성을 다룬 부분)가 이에 대한 해명을 제시한다.

- 범례적 필연성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: 취미판단의 필연성은 자연법칙의 '논리적·객관적 필연성'이나 윤리법칙의 '실천적 필연성'과는 다르게 '감성적·주관적 필연성'이며 범례적 필연성이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(2교시)

◆ 범례적 필연성과 공통감

※ 취미판단의 범례적 필연성과 이것이 어떻게 객관적 필연성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. 『판단력 비판』중 **제1장 미의 분석론**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번 시간으로 마무리된다.

▲ 모범과 모방

- 모방: 본이 되는 것의 외양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.

- 모범(범례)를 따르는 것
  : 자기 스스로의 것을 만들어나가는 가운데 본이 되는 것의 영향을 받는 것.
  자연의 법칙이나 정해진 윤리 규범을 따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.

- 똑같은 것이 그대로 다시 재연되는 것은 **범례적 필연성**에 해당되지 않는다.
  ---→ ※ **단칭판단의 보편성**

▲ 플라톤과 칸트의 예술관

- 플라톤
  : 예술은 현상의 모방, 현상은 이데아의 모방이다.

- 칸트
  : 모방은 훈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,
  진정한 아름다움은 모방에서 나올 수 없다.
  <u>독창성</u> 있는 예술 작품만이 범례적 필연성을 갖는다.
  ■■---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능력

▲ 취미판단의 보편성

- 취미판단은 주관적, 범례적 필연성을 지닌다.
  그러나 **'공통감'을 전제한다면 <u>객관적 필연성</u>을 말할 수 있게 된다.**
  ■■-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

▲ 공통감(common sense)

※ 칸트가 '공통감'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나타나는 두 가지 맥락
a. 그리스적 전통에 따른 의미
: 오감을 통합해서 감지하는 능력 (아리스토텔레스)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→칸트- 취미의 능력

b. 로마적 전통에 따른 의미

: 공동체적인 감각

타인들과 맞춰서 느끼고 교감한다는 뜻

→칸트- 반성적 판단력의 준칙

- 공통감

■■ 논리적 공통감 예)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른다.

■■

■■ 감성적 공통감 ■■ 상호간의 감정을 견주어보고 평가

■■ 인식능력들의 관계가 상호 적합한 관계인지 확인

※ 미의 분석론

제1계기 - 성질: 무관심성

제2계기 - 분량: 보편성

제3계기 - 관계: 합목적성

제4계기 - 양상: 필연성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